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 결렬... 법정공방 불가피

공항측 2차 임대료조정기일 불참
인천지법, 강제조정안 마련 계획
조정안 이의 제기 땀 소송 가능성
‘면세 안방’ 해외자본 유입 위기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과 인천 공항공사와의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도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에도 실패하며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K-면세의 안방인 인천공항 면세점 자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 감소한 9199억4652만 원이다. 구매 인원은 258만339명으로 9.2% 늘어난 반면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16.4%나 줄어 들었다. 여객 수로 임대료를 환산하는 상황에서 1인당 구매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면세점들은 매달 50억~1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고객 비중이 큰 중국 소비 시장이 크게 침체했고, 고환율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고객의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과의 임대료 협상도 결렬되며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임대료 조정기일에 인천공항 측이 불참하며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조정이 결렬됐다. 인천공항 측은 두 면세점 임대료를 깎을 경우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면세점들은 지난 4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2차 조정 기일 전날 30~35%로 요구액을 낮췄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인천지법은 강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안에 강제성은 없어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인천공항이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인천공항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에선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 할 경우 국내 면세 사업자인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하고 그 자리를 중국 등 해외 자본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항 면세점 입점은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철수할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자가 유입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인천공항의 강경한 태도는 업황이 악화하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해외 주요 공항 움직임과 대조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입찰로 선정된 면세점



예보한도 상향 첫날 은행 찾은 권대영 부위원장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인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美 관세에도 8월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자동차·선박이 견인
對美수출 줄고 아세안 증가세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8월 수출액은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 늘어난 584억 달러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12% 급감하며 뚜렷한 타격을 받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입은 4% 줄어든 519억 달러,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 이후 3개월 연속 역대 월간 기준 최대 수출 실적이 이어졌고, 무역흑자 역시 7개월째 지속됐다.

8월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3개 품목이 이끌었다.

반도체는 151억 달러(27.1% ↑)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두 달 만에 다시 경신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호재로 작용했고, DDR4 가격은 전년 대비 178%, DDR5는 16.7% 올랐다.

자동차는 순수 전기차(68.5% ↑)와 하이브리드차(13.3% ↑)가 모두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중고차 수출도 37% 늘면서 55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연기관차는 1.6% 감소했으나 친환경차가 이를 만회했다.

선박 수출은 고선가 수주 물량 인도가 이어지며 31억 달러(11.8% ↑)를 기록,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 화장품, 전자기기 수출이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반면 석유제품(△4.7%), 석유화학(△18.7%), 철강(4개월 연속 감소)을 비롯해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바이오헬스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9대 주요 시장 중 아세안·CIS·중동 3곳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 호조에 힘입어 109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CIS(9.2% ↑), 중동(1% ↑)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줄며 87억 달러(12% ↓)로 폭 떨어졌다. 이는 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온 수치다. 반도체·항공유 등 관세 예외 품목은 선방했으나 전체 감소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중국 수출은 일반기계·통신기기 부진으로 2.9% 감소했지만, 반도체(10.9% ↑) 선전 덕에 전체는 110억 달러로 보험 수준을 유지했다.

EU는 자동차(78.9% ↑)와 선박(2.9% ↑)은 늘었지만 기계·석유화학·바이오헬스 부진으로 전체 수출이 줄었고, 일본 역시 석유제품·철강 감소로 5.2% 하락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모리 패권 노린 엔비디아, 핵심부품 손댄다

HBM 베이스다이 자체생산 추진
SK하이닉스 견제 조치 해석도

엔비디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는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산업 권력 재편에 나서고 있다. 7세대 HBM인 HBM4E부터 엔비디아의 자체 설계 베이스 다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HBM 베이스다이의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스다이는 AI 반도체에 필수로 쓰이는 HBM의 핵심 부품이다. 현재 GPU와 AI가속기 패키징을 대만

TSMC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HBM 핵심 부품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오는 2026년 말까지 베이스다이 개발을 완료한 뒤 2027년 상반기에 TSMC의 12nm(나노미터)공정에서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표준 HBM4E를 먼저 채택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맞춤형 HBM4E 설계로 전환해 TSMC 3nm 공정 노드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TSMC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베이스다이를 생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보를 두고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를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는 2024년 물량 완관을 선언하며 HBM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올해는 마이크론이 2025년 물량을 먼저 완관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의 협상에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시각이 따른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아직 HBM을 납품하지 못하지만 올해 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대통령실, 정부에 ‘추석 전 농수산물 물가관리’ 지시
▲우 의장 “국회, 국민 삶 지키는 민주주의로 가야... 개헌특위 10월 구성”

/사진 뉴스

▲김용범 “李, 한미정상회담 못 해도 되니 관세협상 무리한 사인은 안 된다고 해”
▲인사청문회 하루 앞두고도... 최교진 의혹 현재 진행중

▲민주당 전북도당, 홍보소통국장에 최광호 전 전주시 비서실장 임명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 군 4성 장군 모두 교체